

전북연구원 '10대 연구 아젠다' 발표

5대 도정 목표 구체화·정책선도 위한 50여개 연구과제 선정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206호)을 통해서 전북자치도 출범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에서 추진할 10대 연구 아젠다를 선정·발표했다.

전북연구원은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문화·체육·관광거점, 새만금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도정 5대 목표를 구체화하고 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10대 연구 아젠다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0여 개의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사람·자본이 모이는 생명경제 거점화에 주력하고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산업 진흥'을 첫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였으며,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고품질농산업을 복합단지 구성, 수소산업 육성, 디지털 대전환 대응 등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전북형 탄소중립 모델'을

발로 지속가능 경제 생태계 조성'을 두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탄소중립 도시 조성 전략, 기후테크 산업 육성,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농생명산업 수도의 혁신기반 완성을 위해 '농생명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세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농생명 에코유지업 구축,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식품산업 활성화, 농생명 산업지구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을 위해 지역 역사·문화·생태 자원의 가치 극대화에 주목하고 '역사문화의 재발견과 활용'을 네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였으며,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국가인문정원 조성, '태조 이성계' 프로젝트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제안했다. 또한, '지방소멸시대, 더 특별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다섯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유무형 자산의 글

로벌 콘텐츠와, 전북자치도 특화 관광 자원 개발, 2단계 생태관광 전략 등의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새만금도약과 균형발전 부문은 새만금과 특별한 자치로 지역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 가속화'를 여섯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였으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의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의 브랜드 창출과 특례 확대'를 일곱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재정특례 제도 개선, 2단계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전북포럼기획(Jeonbuk State Forum) 등의 연구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젠다로 '청년인구 확충 및 전북 특화형 비자 확대'를 제시하고 생활인구 유입 방안,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제안했다.

도민행복과 희망교육 부문은 든든한 복지와 창의·협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 확대'를 아홉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전북형 돌봄체계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산업 이끄는 인재교육 기반 구축'을 열 번째 아젠다로 제시하고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공모 대응, 직업교육훈련 실태와 발전 방안 등을 주요 연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연구원은 10대 연구 아젠다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연구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도정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 세미나, 이슈브리핑 발간, 이슈&트렌드 특강 등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연구성과를 확산시키고 피드백 되는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는 15일 도 도민안전실장, 안전정책과장, 진안군 안전환경국장, 안전재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군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진안군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장 점검

자치도 도민안전실장 등 참석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도 도민안전실장, 안전정책과장, 진안군 안전환경국장, 안전재난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진안군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2023년에 설치된 진안군 북부마이산 가위박물관을 찾아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했고, 2024년 선정된 운산인공습지, 자주공원을 찾아 사업 계획을 청

취하고 사업대상지를 세심하게 둘러봤다. 해당사업은 전북자치도가 사업대상지 선정 시, 경찰,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적재적소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안전에 취약한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에 취약한 지역부터 사업을 추진해 도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 전직원 대상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공연장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2020년부터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됐다가 5년 만에 대면교육으로 추진했다.

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

장이 성희롱과 성폭력, 스토킹 및 신종범죄 등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염 소장은 가톨릭대학교 탐정학 전공교수로 각종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제 성범죄 사례를 분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대처방안 등을 위주로 설명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장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성인지 관점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5일 공연장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산업 선도

산·학·연·관 협업 통한 푸드테크 신기술 개발·적용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기술 선도를 위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2022년 12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규 공모 사업으로 개소당 105억원이 투입되며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

이클링 등 3개 분야를 선발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연구부지에 대체식품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여 대체식품 관련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과 연구개발 기술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 내 푸드

테크 분과를 통해 2022년부터 대체육 산업 육성 전략포럼, 푸드테크 혁신포럼 등을 개최했으며, 지난해 9월 출범한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에서 대체식품과 스마트 제조 부문을 특화해 오고 있다.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전북대학교와 전주대학교의 푸드테크 계약학과에서 40명이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으며, 교육부 지역혁신사업(RIS)사업을 통해 연 30

명의 푸드테크 전문인력이 배출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생명산업수도로서 푸드테크 기술 선도의 최적지대"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구축될 경우 산·학·연·관 협업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거점시설로써 국가 차원의 신산업 창출을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등의 사유로 돌봄수요가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 가정에 아이돌봄비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4년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1,63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 유형에 따라 비용의 15~85% 범위에서 정부 지원을 적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부터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해 돌봄 취약층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추가로, 기존에는 월 100시간 이상 영아를 돌보는 영아전담 돌보미에 월5만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했지만, 더욱 촘촘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급기준을 월 60시간 이상부터로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모든 아이돌보미에 건강검진비 및 교육비 등을 지원 중으로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긴급·단시간 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긴급하고 유연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 가능 시점을 이용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으로 단축한 긴급 돌봄서비스와, 최소 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